

수능국어

2021^판

짜장

고난도
실전문의고사

제2회

이성호 저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와 유형문제 제시
- 2020/19/18 수능형 고난도 문제 수록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수능국어 **짜장**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현고, 서초고를 거쳐 현재 수능국어 짱 수능/
내신 국어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국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짱 원리와 유형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산문문학편〉 〈독해편〉 〈문
법/화법/작문편〉 집필 (수능국어 짱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 〈독
해/논리편〉 〈문법/화법/작문편〉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수능 국어 짱 원리로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수능국어 짱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국어 짱 **실전모의고사 2021 고난도 제2회**

지은이 | 이성호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구매한 개인만 개
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현재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봄 기니를 시작으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으로 에볼라가 전염된 뒤, 최근 나이지리아에서까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에볼라의 치사율은 54.6%로, 이전의 다른 에볼라 발병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희생자 숫자는 가장 많습니다. 이번 에볼라 비상사태는 어떻게 시작돼서 퍼진 걸까요?

사건이 최초로 시작된 장소는 기니의 멜리안도 마을이고, 최초로 환자가 발생한 시점은 작년 12월 2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기니의 세도시에 에볼라를 퍼뜨린 사람으로 지목한 이는 야생동물과 접촉한 게케두 마을의 사냥꾼이 최초로 감염시킨 멜리나도우의 남자아이, 마을을 방문했던 보건의로 전문가, 그를 치료하다 숨진 마센타의 의사, 딱 세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가진 야생동물에 물리거나 날 것으로 먹을 경우 에볼라에 감염될 수 있죠.

이번 에볼라의 치사율은 54%로 이전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낮은 치사율이 에볼라의 확산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치사율이 낮아 숙주가 오래 살아남는 바람에 바이러스 입장에서 다른 숙주를 찾는 데 시간을 많이 번 셈입니다.

에볼라는 어떻게 지금처럼 진화한 걸까요? 돌연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 스테판 군터 박사팀은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의 DNA 서열이 자이르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하며 그 차이는 약 3%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3%의 차이가 치사율을 낮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장례식을 치를 때 죽은 이에 게 키스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의식이 에볼라를 확산시켰습니다. 침은 죽은 이와 키스를 통

해서 에볼라를 퍼뜨렸습니다. 라이베리아 북부 지역의 에볼라에 감염된 여성의 여동생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몬로비아로 향하는 통근 버스에 탑승합니다. 이때 같이 탔던 다섯 명이 감염돼 숨졌습니다. 라이베리아 재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패트릭 소여는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의 공항에 내린 뒤 쓰러졌습니다. 그는 라고스 시내의 유명 병원에서 말라리아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정부는 최근 교민 700명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팀을 나이지리아에 급파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철수를 권고했고, 대부분이 귀국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에볼라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0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이 확대된 이유를 제시해야겠군.
- ② 현재의 에볼라 사태의 시작을 추정해서 알려주어야겠군.
- ③ 에볼라 바이러스의 진화 과정을 밝혀 그에 따른 대비 방안을 제시해줘야겠군.
- ④ 치사율 낮은 현재의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왜 더 많아졌는가를 설명해야겠군.
- ⑤ 현재의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드러내야겠군.

02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 ①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 ② 청중의 반응과 관련 없이 자신의 알고 있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설명하였다.
- ③ 발표자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서술하여 독자의 신뢰감을 형성시키고 있다.
- ④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 ⑤ 도입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였다.

[3~5] 다음은 토론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요즘 유전자 조작 식품 개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 개발은 필요한가?’란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개념을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상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이나 식품’이라 설정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입론은 찬성 측에서 먼저 해 주시고 이후에 반대 측이 발언해 주세요.

찬성 1 : 무엇보다도 먼저 유전자 조작 식품은 미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그 해결 방안을 유전자 조작 식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반대 1 :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반대의 근본적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안전성 이는 식품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항목입니다.

사회자 : 찬성 측 반대 측의 입론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서 반대 측에서 먼저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 2 : 유전자 조작 식품은 미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잘 활용하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만들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만들어야 할까요?

찬성 2 : 안전성, 안전성이라 말씀하시는데 일주일쯤 굶고 나서도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회자 : 잠깐만요. 찬성 측은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삼가시고 논제와 관련된 발언만 해 주세요.

찬성 2 : 예, 정정하겠습니다. 안전성을 자주 강조하시는데 지금도 안전성 검사는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새로 만들면 식품의약품에서 장기간에 걸쳐 동물 실험을 하는 등 안전성 확보가 된 후에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 줍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미국과 같이 엄격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사회자 : 반대 측과 찬성 측의 논박을 들어 보셨습니다. 마무리를 해 보죠. 찬성 측부터 시작하세요.

찬성 3 : 미래에 닥쳐올 식량 부족 문제를 미리 준비하려면 지금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만들어서 안전성 문제를 검사해 해결해야 하므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 개발을 지금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 3 : 2012년의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농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20억 명의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으로 추산되는데 미래에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주장은 억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 개발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